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6호 [루계 제23028호] 주제 99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탄쟁일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연방 대통령,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 케냐는공화국 대통령, 만마련방 국가혁명위원회 위원장, 몽골 대통령, 아랍사비후 총리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캄보디아 왕국 국왕,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오만수장국 추장, 마르코프 왕국 국왕, 트란사공화국 대통령,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전국혁명운동 위원장인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에리트리아공화국 대통령, 에티오피아인민방위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수상,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인도네시아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국제김일성상》 리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서기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답전에서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그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답전에서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유서깊은 력사의 땅에 굽이치는 경모의 정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통약산혁명사적지 련일 참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이즈음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통약산혁명사적지로는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사적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통약산혁명사적지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운의 천리길》을 걸어나오시어 장덕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기간 통약산에 자주 오셔서 열렬한 애국심과 나라를 위한 뜻을 무르익히시였으며 해방후에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 하시면서 통약산을 인민의 문화유산으로 훌륭히 꾸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어 어머니수령님의 뜻대로 통약산을 인민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꾸리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지난해 1월 어느날 인민의 문화유산으로 훌륭히 꾸려진 통약산유원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참관로정을 탐사하시면서 유원지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날 참바람부는 대풍까지 오

른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웅장 화려한 평양의 정취와 모듬과 날로 풍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축대인양 거창하게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숲을 이룬 공장과 도시들, 끝없이 펼쳐진 풍요한 협동농장을 감탄하시면서 통약산은 산도 아름답기, 바위등만, 문바위, 대풍을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10대의 그 시절에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시며 평양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시던 백두산장군들의 거룩한 위인상을 경건히 우러르셨다. 그리고 통약산을 인민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꾸리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취를 새기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오는 번영의 해로 빛날 뜻있는 올해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결의를 굳게 다지셨다.

수많은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통약산혁명사적지를 김일성민족의 만년제보로 더 잘 꾸리고 관리하는것을 향상과 더욱, 의리로 간직하고 아끼고있는 지성을 바치셨다.

리영남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은 구호문헌보존소를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만도 16만여명에 달하는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외국인, 해외동포들이 통약산혁명사적지를 찾았다.

통약산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김

병태동무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통약산유원지를 현지지도하신 이후부터 참관자들의 수는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한다.

통약산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은 뜻깊은 사연을 전하는 중간바위, 바위등만, 문바위, 대풍을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10대의 그 시절에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시며 평양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시던 백두산장군들의 거룩한 위인상을 경건히 우러르셨다. 그리고 통약산을 인민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꾸리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취를 새기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오는 번영의 해로 빛날 뜻있는 올해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결의를 굳게 다지셨다.

수많은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통약산혁명사적지를 김일성민족의 만년제보로 더 잘 꾸리고 관리하는것을 향상과 더욱, 의리로 간직하고 아끼고있는 지성을 바치셨다.

리영남동무를 비롯한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은 구호문헌보존소를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만도 16만여명에 달하는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외국인, 해외동포들이 통약산혁명사적지를 찾았다.

통약산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김

제 2 차 4 월의 봄 인민 예술 축전이 진행 된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 2 차 4 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갈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열리는 축전은 4 월의 평일을 뜻깊게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4 월 11일부터 19일까지 수도의 극장, 음악당, 회관 등에서 여러 부류로 나누어 단독, 조별, 변향공

연형식으로 진행되는 축전은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와 예술선진대, 가운데예술선진대원들, 각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해 된다.

제 2 차 4 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이룩하며 장식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을 다스림 뚜렷이 파시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공동시설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대화학공업기지에 나오는 혁신의 불길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화해제품생산에 한 걸음이 펼쳐나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공장에 원료와 자재를 넘겨주면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초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비날론공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비날론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주시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두어오는 사랑과 온정을 뜨거운 격정속에서 받아안은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학제품생산에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 차게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 주신 특별감사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중앙과 도에서 내

려운 일군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면서 비상히 양양된 대중의 전로공물을 불리한 조건에서도 로를 가동시킬 수 있는 대담한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고있다.

아세틸렌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광과 탕조, 각종 펌프들에 대한 보수 정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합성직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에서 조 합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알데히드와 초산공정을 담당하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의 심장부를 지켜서도 로를 가동시킬 수 있는 대담한 작업방법을 엄격히 지켜 설비, 장치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간직하며 하면서 질 좋은 초산비닐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다른 직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이미 이러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생산공정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대고조경 투쟁의 새 소서 현대적인 합금강생산기지가 일떠선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현대적인 합금강생산기지를 힘있게 다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합금강생산기지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많은 일감을 해결하고있다.

이 합금강생산기지는 앞선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으로서 현대화수준이 높고 생산능력이 크다. 앞으로 건설이 완공되면 기계공업부문에 더 많은 합금강소재를 넘겨보내주어 자동차와 트랙터 등 기계제품생산에 쓰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철공업을 빨리 키워서야 위야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도 활성화할 수 있고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모든 불꽃과 단위들이 청탄을 불꽃할데 대한 당의 전투호소를 받들고 밀려 앞을 내다보며 합금강생산기지건설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웠다. 한편 철강제조능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질 좋은 합금강생산기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조지작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청탄들과의 전초병면 자각을 안고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 합금강생산기지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리영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그 정신으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

원산군민발전소건설 힘있게 추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발전소를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발전소 건설시회부에서는 건설자들이 앙양된 열의에 맞게 물질을 풀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한편 물결굴착기를 본격

적으로 내밀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여기에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막강이 들어가 공동시설과 공동주호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고 인민적의 모임으로 치밀한 돌격전을 벌이고있는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물결굴착기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새로운 천리마속으로, 《회전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공사의 많은 몫을 해제 하고있다.

물결굴착설 1려단의 일군들은 공사조직을 짜고두고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매일 맑은 공사파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원산화학공장중대의 건설자들은 합한 전투를 벌여 방대한 구간의 물결굴을 판공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착안설비들의 관리를 짜고들어 물결굴착공사를 전투적으로 해제하고있다.

금강중대대의 평강중대대의 건설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이고 고대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그리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맡은 구간의 물결굴착과제를 앞당겨 완수하는 전담을 열어놓고있다. 문평중대대에서는 소공중대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매일 맑게 물결굴착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물결굴착설 2려단이 맡은 물결굴착공사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소비품생산성과 계속 확대

황해남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

공동시설과 공동주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걸음이 펼쳐나선 황해남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 지방공업공정들의 일군들과 총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관리국적인 2월 기초제품생산계획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 걸음대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밑에 관리국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도안의 지방공업공정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혁명, 안전에서 기술혁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며 비누생산에 높은 수준에서 내밀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조직적으로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단위를 맡고나가 생산에서 걸린 기술적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이해주고 내부예비를 탐구지원하여 원료, 자재들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서 지방공업공정들의 로동계급이 높은 생산적양성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공동시설과 공동주호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한걸음이 펼쳐나선 장원, 벽성, 은률군의 지방공업공정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원료, 자재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모든 생산공정을 완비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더 높이고있다.

지금 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산하단위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자랑한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몇몇이 들어서는 결의 밑에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전환의 분수령을 넘어 더 큰 비약으로!

김철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퍼준 위대한 령도

강선의 부화가 김철의 불길로 이어져 북방의 대야금기지가 혁명적대교조의 눈부신 화광으로 붉게 물들고있다.

10여년전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조선의 《붉은》설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패배를 울리던 그 시기 파연누가 김철이 오늘처럼 일떠설수 있다고 상상이나 하였던가.

하지만 오늘 김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대교조의 신봉에서 소리치며 앞장서 나아가고있다.

잊지 못할 단단사연을 가슴뜨겁게 전하며 거세차게 타오르는 김철의 불길.

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수상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주체의 넘어서실장의 더운 피를 필필 끓여온 김철로동계급이 위대한 당과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충정의 불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급선무로 나서는것은 금속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것입니다.》

삼단같은 불길도 한점의 불꽃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철에서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비약의 불꽃, 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김철로동계급은 잊지 못할 날을 감회깊이 추억하곤 한다.

김철의 자랑스러운 연철에 아로새겨져 영원히 길이 빛날 주제 89(2000)년 8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철제철소(당시)를 찾으셨던 력사의 그날은 김철의 력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날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김철로동계급의 마음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무거웠다.

바로 그러한 때에 김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중깊이 새겨두고 제철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 끼이 뵈게 된 제철소일꾼의 마음은 송구하거지 않았었다.

한해전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에

게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 밑뿌리라는 값있는 영예와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김철을 추켜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철의 생산활성화를 위해 주시수 있는 사랑을 강그리 배후신 그이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단계별 로 생산을 추켜세웠지만 그때까지도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다 보답하지 못하고있는 제철소일꾼이었다.

그의 이런 마음속생각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꾼을 나무랄대신 오히려 일을 많이 하겠다고 평가하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강성대국의 한길로 역세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승결인양 거세한 증산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였다.

그날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며 제철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업소책임일꾼들의 협의를 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회의에서 이미 기록된 성과에 토대하여 제철소가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 시기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금속공업의 세계적발전추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여 생산능력확장안을 세웠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변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즉석에서 문제해결의 정확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로부터 출발하여 고찰하고 주제적방안에서 풀어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현행생산을 중단없이 밀고나가기면서 제철소를 개건하기 위한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영광의 그 시각 제철소일꾼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는 김철이 일떠설수 있는 방도가 명백히 밝혀져있었다.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고 방도가 명백해지니 신심이 생겼다.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김철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꾼들로 신심이 생기고 로동자들의 기세도 높다니 좋은 일이라고, 우리의 전망에 대하여 낙관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몇년 이 지나면 땅이 의도하는것이 김철에서 훌륭한 결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며 그때에 가서 김철로동계급은 당의 초치가 얼마나 정당하였는지 하는것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될것이라고 의미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김철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불씨는 이렇게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아래 전란의 넓은 대토로가 펼쳐지고 생산활성화의 우렁찬 동음이 철의 기치를 진감하였다.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고 마나린 북방을 찾아오시며 김철의 승물을 권하니 이어주시고 생산활성화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그 후 김철로동계급이 신약같이 용을 쓰며 4호해탄로건설과 1호소결로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고 대형산소분리기설치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낸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었다.

결코 애로가 없는것은 아니였다.

생산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가 부족했던것이 문제였다.

전란의 도야대에 용약 올라신 김철이 대변의 한길로 줄기차게 줄달음치려면 새로운 질적비약이 일어나야 했다.

비록세척법을 받아들이는것은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에게는 비록세척법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다!

이런 신념, 이런 의지를 안으시고 지난해 2월 어느날에도 김철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기술개건정형을 료해하신데 이어 기업소안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철생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나라 김철의 대야금기진 김철은 금속공업의 발전과 주체화 실현에 쌓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추체공업의 자랑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수립되는 경우에 제기될수 있는 연료보장문제까지 즉석에서 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김철로동계급을 또다시 불사신마냥 일떠세웠으며 굴지의 대야금기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위훈의 자랑찬 불길이 타번지게 하였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또다시 김철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종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어있는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철을 생산하는 우리 식의 주체철용광로, 기업소에서 쓰일 철강재생산을 높이고있는 쇠철연속조피기, 기술개건된 여러 생산공정들...

전란의 분수령을 넘어 눈부신 비약의 길에 들어선 김철의 열풍은 기업소에서나 뜨겁게 불어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드넓은 적제장에 가득히 쌓여있는 강제머리를 보시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깊숙하게 쓰일 철강재생산을 높이고있는 데 대해 못내 만족하시면서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퍼주시였다.

김철에는 환희의 폭풍이 세차게 일었다.

김철에 비약의 불길을 지퍼주시기 위해 마나린 2000리길을 한해에도 두차례나 찾아오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자신의 그 모든 로고는 묻어두신 채 김철이 나라의 미래를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있도록 온 나라의 신봉을 내세워주신 그이의 응심같은 믿음은 지금 김철로동계급의 가슴에서 새로운 위훈의 불길이 활활 타번지게 하고있다.

앞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깊은 올해의 현지도에서 주신 전투적업무를 철저히 관철하여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가 실현되게 될 때 김철의 변혁을 두고 세계는 또 얼마나 경탄할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선진시대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으로, 나라의 말아들로 세상에 위용을 더욱 높이 펼치는 김철.

우리 나라 굴지의 대야금기진 김철은 금속공업의 발전과 주체화 실현에 쌓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추체공업의 자랑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민생활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에는 일꾼들에게 우리 식의 참된 실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우쳐준 가슴뜨거운 사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지도일꾼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제 92(2003)년 4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먼저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알아보시면서 이 공장에 문제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공해가 전혀 없다는 일꾼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가지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공해가 없다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작업현장으로 들어서시어 여러 생산공정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일꾼들은 우리 로동자들이 현대화되고 주변화가 깨끗한 일터에서 일 하고있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 그리고 큰 기쁨을 안겨드렸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돌아보고났을 때야 일꾼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무가루로 만든 제품을 보아주실 때였다.

제품전시대에 다가서시어 여러가지 신발류들과 고무제품들을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꾼들에게 이 제품들이 다 고무가루로 만든 것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렇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며 손수 전시대우에 놓여있는 신발 한켠케를 드시고 찬찬히 보시다가 신발창을 고무가루로 만드니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꾼이 고무가루로 만든 신발창이 질기다고 말씀드리였다.

이때 도의 한 일꾼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을 도대 학생들에게 팔고있고있는 사실까지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햇빛같은 미소를 띠시고 이 공장은 새 세기에 맞는 현대적인 공장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고무가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한 일꾼이 생산한 고무가루를 신발공정들에 보내준데 이어 지금 생산하여놓은 고무가루도 그렇게 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대뜸 그것 참 잘한 일이라고, 그래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이런 고무가루를 생산하여 신발공정들에 적지 않게 보내주었으면 잘하였다고, 이 공장은 확실히 실리에 맞는 아주 훌륭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실리에 맞는 훌륭한 공장! 리율이 곧 실리라고만 생각하고있던 일꾼들의 안목을 띄워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진시던 제품들을 다 보시고 공장내로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시대 앞으로 되돌아오시어 일꾼들에게 고무가루를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들이 적지 않은데 꼭 기술적으로 해결해볼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마당에 쌓여있는 고무가루를 넣은 마대들을 보시고는 썩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밖에 놔두어 버릴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럴수록 잘 보관해야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시면서 공정의 주인들을 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이르러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다시금 공장을 둘러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을 만부하로 둘러싼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수 있다고, 때문에 실리판비, 기술판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꾼들의 뇌리에 방금전 공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족해하셨던 일들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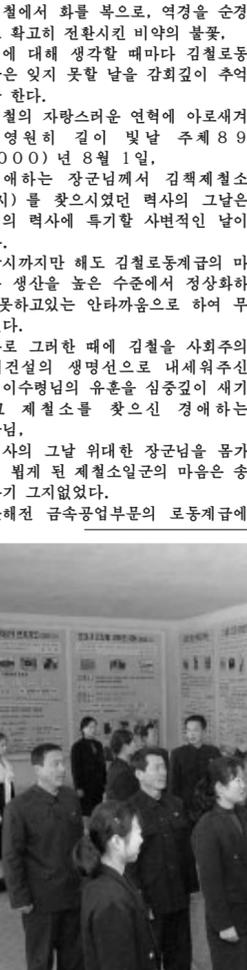
공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 깨끗한 환경의 작업장, 실지 인민들에게 들리지는 생산품... 일꾼들은 비로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실리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수 있는것, 우리 당의 경제강국실현에 참담게 이바지하는것이야말로 실리가 있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날 동행한 일꾼들에게 공장을 건설하면 이 공장처럼 실리가 나고 쓸모있는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어 아니었다.

정녕 이 공장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현지도는 이곳 일꾼들뿐 아니라 온 나라 경제부문 일꾼들에게 실리의 참뜻을 깊이 심어준 의의깊은 현지도였다.

본사가 기 령 철 호



연혁소개실을 통하여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공장이 걸어난 자랑찬 력사를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김철로동계급에서— 본사가 기 령 철 호

지금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김철성민족의 자존심이 침탄을 둘러싸고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일대 공격전이 벌어지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인민들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올해공동사업과 입법활동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드넓은 자존심으로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교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야 합니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긍지와 자부심이고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마음이며 민족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자기 민족을 세계에 떨치려는 인민의 비장한 자각과 의지는 무한대의 힘을 낳는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대교조도 강한 민족적자존심에 원천을 두고있고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백승을 안아오는 비결도 사생결단의 민족자존심에 있다.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위하여 분발하여 일떠서는 인민에게는 이 세상에 두려울것도 없고 못낼일이 없다.

우리 인민은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이며 민족주의의 정신에서도 민족적자존심은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원동력으로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대교조건설을 가로막아보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주체의 정신,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없으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집요하게 강행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할수도 없고 대교조의 승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생명과 같다. 전체 인민이 누구나 선군조선을 고난과 시련을 박하고 어떻게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솟구쳐오르

민족적자존심은 오늘의 총공세의 위력한 정신적무기

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겠다는 정신으로 천리마대교조를 일으켰으며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을 세계적인 창조와 비약으로 아로새겼다. 우리가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 사회주의승리의 영예를 떨치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었던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웠다는 자존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로 올려세우겠다는 찬란군민의 강한 정신력이 그대로 대교조의 불길이 되고 기적과 위훈창조의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대교조의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민족적자존심은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원동력으로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대교조건설을 가로막아보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주체의 정신,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없으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집요하게 강행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할수도 없고 대교조의 승리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생명과 같다. 전체 인민이 누구나 선군조선을 고난과 시련을 박하고 어떻게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솟구쳐오르

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분발하여 일떠설 때 오늘의 대교조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될것이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자기 민족이 잘 살고 번영하기를 바라는것은 그 어느 나라 인민에게나 공통된 지향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작전을 펼치고 력사에 일찍이 없었던것은 이른 총공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려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대교조건설의 대교조건설의 현명하고도 21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정공업생산기지가 도처에 일떠서 커다란 힘을 내고있으며 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이 이뤄지고있다. 대교조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대교조건설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은 현실로 꽃피어날것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본래 대교조전진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기 위한 근본원천이다.

민족적자존심은 혁명적인민의 투쟁방식, 창조본래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이라면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폭발

적인 정신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건원불발의 정신력은 혁명과 건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게 한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펼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방식, 창조본래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이다. 남들이 백골을, 천걸을 걸은것도 단 한걸음에 비약하였다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흐르는 분과 초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으며 새로운 대교조전진속도를 창조적으로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회천발전소 건설자들이 종전기간인 10년이상 걸려야 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2-3년안에 해제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고, 강령대교조 건설을 위한 로동력생산체계를 완성하는 21세기의 기적을 안아올수 있는것은 그들의 심장속에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팍차있었기때문이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속속도》와 성강의 본래에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건성만 아니라는 민족자존의 정신력, 우리의 진군을 가로막는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겠다는 만만치 못한 투지와 배짱이 맥박치고있다.

그 강한 정신력이 최고수령관의 리를 뭉개 버릴리며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공격적으로 강행 돌파해나가는 일당방식에도 창조하게 하고 조국방사에 길이 빛날 기적을 낳게 한것이다.

우리 식에는 주체사상이 빛발치고 민족자존의 넓이 깃들었다.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본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대교조의 승리가 있고 주체의 강성대국이 있는 시대를 펼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방식, 창조본래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이다. 남들이 백골을, 천걸을 걸은것도 단 한걸음에 비약하였다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흐르는 분과 초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으며 새로운 대교조전진속도를 창조적으로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회천발전소 건설자들이 종전기간인 10년이상 걸려야 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2-3년안에 해제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고, 강령대교조 건설을 위한 로동력생산체계를 완성하는 21세기의 기적을 안아올수 있는것은 그들의 심장속에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팍차있었기때문이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속속도》와 성강의 본래에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건성만 아니라는 민족자존의 정신력, 우리의 진군을 가로막는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겠다는 만만치 못한 투지와 배짱이 맥박치고있다.

그 강한 정신력이 최고수령관의 리를 뭉개 버릴리며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공격적으로 강행 돌파해나가는 일당방식에도 창조하게 하고 조국방사에 길이 빛날 기적을 낳게 한것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침탄을 돌파하여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들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과학기술봉쇄로써 우리의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하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은 결코 발전된 나라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악랄한 봉쇄책동속에서도 첨단과학기술의 요소를 점령해나가고있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남들을 그저 따라갈것이 아니라 시대의 첨단에 서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낳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만일 우리 인민에게 이러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없었더라면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쏘아올리는 력사적사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였것이며 CNC기술의 명

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핵심기초기술발전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오늘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을것이다. 우리의 힘은 자기의 창조적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정치, 군사, 문화뿐 아니라 과학기술에서 구원해나가는 대교조의 승리가 있고 주체의 강성대국이 있는 시대는 물론 목표를 내세우며 세계를 굽어보며 힘차게 내달리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민족자존의 열정이다. 지금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방직공업과 식료공업부문 그리고 축산과 파수, 양어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 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는 현실은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새로운 열망에 울려세우는 우리 인민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자존심이야말로 그 어떤 과학기술적목표도 점령하고 하고 세계를 향하여 더 높이 도약하며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칠수 있게 하는 만능의 무기이다.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따라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뜻깊은 올해에 김철성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김 병 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현지도 기념보고회가 16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리태남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기업소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군철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3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나아가실 길을 밝혀주시고 이곳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자동차들의 구조와 성능을 자세히 알아보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고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3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나아가실 길을 밝혀주시고 이곳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자동차들의 구조와 성능을 자세히 알아보시

고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3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나아가실 길을 밝혀주시고 이곳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자동차들의 구조와 성능을 자세히 알아보시

고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3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나아가실 길을 밝혀주시고 이곳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자동차들의 구조와 성능을 자세히 알아보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현지도 기념보고회가 16일에 진행되었다. (본사가 기 령 철 호)

만수대거리살림집을 본보기로 하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라!

(공동구호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당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하방지구로부터 서포지구까지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작업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공사실적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경제건설에서 도 앞장서서서 로력적위력을 떨치고 빛나는 보증을 보이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혁신을 일으키면서 온 나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과 생산적양양에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신도함에 대한 공동구호의 전투적소를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은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것은 열의와 안고 비약의 한걸음 내달리는 단위들속에는 조선인민군 리식속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다중살림집건설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들 모두의 가슴속에는 수도건설장에 불려준 당의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이 자리잡고있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건설경험을 터득하는 동시에 실적으로 높일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부대가 맡은 여러 살림집호동중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에 건설되는 살림집공사를 힘있게 이끈 부대들을 창조한다던 제일 어려운 대상을 우선 극복하면 서로 빠른 기간에 성과를 확대할수 있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뚜렷한

목표밑에 진격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화선식정지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공사는 거울처럼 또 증단없이 계속되었다. 그 나날에는 맨날 주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한 보온대책을 세우고 기초공사를 다그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담도 새겨졌다. 이 기간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오늘 여러 단위들중에서 기초공구리치기 단위 담번지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해줄 혁명적의지를 안고 위훈을 펼쳐가는 조선인민군 김원진속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도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사초기에 부대가 건설하는

살림집호동들의 기초공사구간에는 덩치가 큰 구조물과 많은 물이 고인 두개의 못이 있었다. 날과 날을 이어가며 못의 물을 아무리 퍼내어도 샘솟듯 하는 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양수기를 위에서 보강해 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의 어려운 투쟁을 누가 대신해줄수 없다는것이 이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불변의 신념이었다. 하기에 이들은 새로운 작전안을 펼쳤다.

기초구간보다 낮은 곳으로 물이 빠질수 있게 물길을 파서 고인물을 자연적으로 뽑자는것이였다. 그 거리는 100여m나 되었다. 그러나 난관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현수적인 공격정신을 발휘 이런 투쟁기풍은 조국의 부흥이래만 산악도 떠들썩하게로 펼쳐나선 혁명적군인정

신의 소유자들인 군인건설자만이 발휘할수 있는것이였다. 편이여 김정환, 윤성일속속부대와 군인건설자들은 천여m의 땅을 단 3일만에 처리하고 고인물을 말끔히 뽑은 다음 구조물철거작업에 들어가는 혁명적인 위훈을 펼쳤다.

총공사의 불길드높이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위훈을 펼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이 어찌 이

들뿐이랴.

전초기에 선 화선명사의 자레로 수m깊이의 기초구간에서 허리치는 물과 갈랑갈랑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 하나하나의 건물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충할수 있게 건설장마다 우물들을 파고 자갈과 모래를 깨가 새척하며 콘크리트기기를 다그치는 조선인민군 김경삼속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 하나의

기공구를 만들어도 연유와 동력을 절약할수 있게 기발하게 착상하고 만들어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 여러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자기들이 지켜선 공사장을 전선으로 여기고 무비의 담력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해가는 이런 군인건설자들이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있기에 하당, 서포지구 살림집건설장에서의 공사성과는 나날이 뛰어나고있다.

그렇다. 당의 부름에 심장을 뚫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들쭉날쭉, 일당백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여러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하당, 서포지구 살림집건설장에서는 가가운 앞날에 현대적인 다중살림집들이 수놓처럼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민밀한 작전, 전투적인 일분새

인민보안성건설려단에서

한동이 수백세대나 되는 민밀한 다중살림집건설을 맡은 인민보안성건설려단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거두고있는 성과는 대수롭지않고 있다. 공사초기에 구조물철거와 지대정리를 단 5일동안에 끝낸 이들은 구획도로공사에서도 남다른 혁신을 창조한 기세로 기초공구리치기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단히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 나가야 합니다.》

다중살림집건설을 맡았을 때 려단의 일꾼들은 주저하지 않고 공사를 분대있게 추진할 작전을 세웠다. 공사초기는 어려웠다. 덩치큰 살림집건설에 비해볼 때 노력과 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것

안전성건설려단에서

이다. 하지만 당이 제시한 수도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내부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는것이 일꾼들의 드림없는 자각이였다. 공사지휘를 맡은 한천호,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시작부터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중의 정진력을 분출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하는 화선식정지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현장의 여기저기에 수많은 붉은기들이 세워지고 전투속보판들도 나돌았다.

군인건설자들의 창조적기상이 나타내는 속에 5동의 가설 건물도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 공사준비사업이 진행될 후 려단의 일꾼들은 필요한 자재를 한가지 지표의 밑안이고 공사구획도에도 관심을 돌려 공사를 추진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자체확보전투는 현장에서도 벌어졌다. 구분대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 군인건설자들은 많은 량의 나무와 수습장자의 벽돌을 비롯한 공사용자재를 적지 않게 확보하였다.

진격의 돌파구가 열리는 속에 조선인민군비대 김대성속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거울처럼 또 증단없이 계속되었다. 그 나날에는 맨날 주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한 보온대책을 세우고 기초공사를 다그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담도 새겨졌다. 이 기간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오늘 여러 단위들중에서 기초공구리치기 단위 담번지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려단의 전투원들은 살림집기초공사기간에 구획도로작업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여러개의 인민공사와 리만형성 및 혼석깔기 등을 동시에 힘있게 추진하여 시공단위들중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공사로써 많은 공신과 위훈을 떨친 한대우 수훈 평가를 받는 자랑스런 장교였다.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려단의 일꾼들과 전투원들은 달거린 공사과제수행에 새로운 위훈을 떨친 한대우 수훈 평가를 받는 자랑스런 장교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시공의 공업화를 힘있게 추진

특색있게 진행된 기공구전시회

살림집건설에 동원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일찍이 통나무생산과를 끊임없이 확대하고있다. 현대화향에 대한 공동구호의 전투적소를 대모든 작업에 필요한 기공구를 원만히 갖추고 공사의 숨결을 한층 높여나가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속속부대에서는 구분대로 필요한 기공구의 가지수와 량을 확정하고 수동식철근절단기를 비롯한 50종에 3만 5천여점의 솜모이는 기공구들을 만들어 공사에 받아들였다.

한편 수도건설부에서는 당위원회 지도부에 모든 단위들에게 시공구구수를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데 이어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를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 수도건설부내 여러 단위에서 비롯한 시공 및 경제생산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조립식건설과 마감공사, 경제생산과 건축물의 모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500종에 26만여점의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이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인민봉사총국건설려단 1, 2대대와 채취공업건설려단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까지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건설자

들도 기공구전시회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많은 공사들에게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킨 자기들의 혁명적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출동식재출동식 진행

수도의 살림집건설을 위한 중앙련합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수도건설부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출동식재들의 출동식이 있었다.

출동식을 앞두고 수도건설부 운수관리국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은 모든 단위들에게 기판의 시동 및 기술정비상태를 완벽히 하리공구와 예비부속품의 가지수를 보다 높이도록 하였다.

출동식과 상업성, 국가계획위원회건설려단과 문화성과 상업성건설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비롯한 시공의 공업화를 위한 현실화 적은 모든 단위들에게 시공과를 힘있게 추진할수 있다는 판집을 지니고 늘들수는 콘크리트혼합기들을 남편지 설치하는 모범을 보였다.

건설성과 상업성, 국가계획위원회건설려단과 문화성과 상업성건설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비롯한 시공의 공업화를 위한 현실화 적은 모든 단위들에게 시공과를 힘있게 추진할수 있다는 판집을 지니고 늘들수는 콘크리트혼합기들을 남편지 설치하는 모범을 보였다.

업소의 골재장들을 비롯한 여러곳에 달려나간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필요한 골재수송선로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많은 건설기계를 확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건설려단과 국가해사감독국건설려단, 조선인민군 김경삼속속부대와 인민보안성건설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은 시공의 공업화를 위한 현실화 적은 모든 단위들에게 시공과를 힘있게 추진할수 있다는 판집을 지니고 늘들수는 콘크리트혼합기들을 남편지 설치하는 모범을 보였다.

건설성과 상업성, 국가계획위원회건설려단과 문화성과 상업성건설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비롯한 시공의 공업화를 위한 현실화 적은 모든 단위들에게 시공과를 힘있게 추진할수 있다는 판집을 지니고 늘들수는 콘크리트혼합기들을 남편지 설치하는 모범을 보였다.

만수대거리살림집을 본보기로 하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라!

당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하방지구로부터 서포지구까지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작업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공사실적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할 일념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할 일념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평양시 건설관리국에서 -

살림집건설장들에 많은 통나무를

살림집건설을 맡은 중앙련합지휘부와 립업성의 해당 일꾼들은 립업사업소들에 내려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통나무생산량을 적극 추진할 면밀한 작전을 펼치고 노력과 세련된 자재보장대책을 잘 세워나가고있다. 자강도립업관리국아래 평림과 송원, 화평립업사업소의 일꾼들은 통나무생산으로 들끓는 산관들에서 울라가 화선식정지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체별공포모두가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동시에 추진하여 날마다 높은 생산성적을 기록하고있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통나무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의지를 안고 립지로 정해진 산관들에 달려나간 수도건설청년동맹관리국아래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전투원들은 운재리와 다리, 운제길형성전투에서 창조의 기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관리국아래 제2리단과 제5, 6리단의 전투원들은 눈덮인 산관들을 주름잡으며 화려하고도 통나무를 다그치는 한편 립업소

동시들과 함께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통나무생산과를 끊임없이 확대하고있다.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립업부문에서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통나무생산으로 들끓는 립업사업소들에 트락토르와 기계, 쇠바늘을 비롯한 설비와 자재를 보내주어 생산의 솜결이 더욱 높아지게 하고있다. 한편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위한 중앙련합지휘부의 해당 일꾼들은 철도성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도장들에 쌓인 통나무를 제때에 집중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강명일**

내 각 총리 김영일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3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김영일동지는

로두철헌각부총리와 함께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은 류용주 주조 중화인민

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형준 외무성 부

상과 학호비공사참사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다, 우중중한 산들이 병충처럼 들떠서 꽃이 자라라는 공평은 산중의 《무악각》을 방문하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축산업에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반겨주는 공장일군은 올해농사에는 벌써 한결 반 먹어놓은것이라고 장담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반겨주는 공장일군은 올해농사에는 벌써 한결 반 먹어놓은것이라고 장담하는것이였다. **특파기자 김천일**

씨뿌리기준비로 들끓는 협동벌

은 파군 레로 협동농장에서

《한데농사에서 제일 바쁘다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농장원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받고 올해에 풍만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협동벌에서는 모든 영농공정에서 농장적으로 언제나 앞서나간다는 제 3작업반원들이 바람막이바지를 새우는 등 씨뿌리기준비를 다그치고 있었다. 분조장인 김기찬, 김철민동무등도 그렇지만 인민군대에 나간 아들에게 뒤질새로 오늘 아침에도 누구보다 먼저 전투장에 뛰어나왔다. 후방가죽인 흥영복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도 웃통을 벗어던지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이고있다. 팔복작업반에서는 농장원들이 모판에

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은 벌써 한결 반 먹어놓은것이라고 장담하는것이였다. **특파기자 김천일**

농장원들은 벌써 한결 반 먹어놓은것이라고 장담하는것이였다.

우리를 반겨주는 공장일군은 올해농사에는 벌써 한결 반 먹어놓은것이라고 장담하는것이였다. **특파기자 김천일**

우리를 반겨주는 공장일군은 올해농사에는 벌써 한결 반 먹어놓은것이라고 장담하는것이였다.

우리를 반겨주는 공장일군은 올해농사에는 벌써 한결 반 먹어놓은것이라고 장담하는것이였다. **특파기자 김천일**

과학화, 현대화의 자랑 꽃피는 일러

평북대지공장을 찾아서

황을 감시하며 돼지들의 생육에 맞게 온도, 습도, 공기조절을 진행하고있는 이들의 작업 모습은 참으로 멋있었다. 이이 우리는 텔레비전화면으로 새기돼지호동안을 보았다. 우리마다 옥실거리하는 새끼 돼지들은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우랑품종의 종자돼지들이 낳은것들이라고 한다. 현대적인 먹이공급설비와 물공급설비, 온도습도 등 새끼돼지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현대화된 돼지공장으로서 새끼농도에도 구애됨이 없이 새끼돼지들이 잘 자라고 있었다. 관리공들은 새끼돼지들을 살피며며 과학기술적요구대로 관리하기 위해 책임성을 높이고있었다. **특파기자 김천일**

신용할여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창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구호를 받들고 올해에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높은 목표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파기자 김천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는 성과들이 확대되고있다. 양어장에서는 종자물고기와 갓 가까운 새끼물고기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해나가고있다. 양어작업반의 관리공들은 물고기들의 특성에 맞게 물온도보장과 영양관리에 정성을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양어장에서는 종자물고기와 갓 가까운 새끼물고기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해나가고있다.

양어장에서는 종자물고기와 갓 가까운 새끼물고기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해나가고있다. 양어작업반의 관리공들은 물고기들의 특성에 맞게 물온도보장과 영양관리에 정성을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침략자, 도발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자멸의 길로 내달리는 어리석은 호전광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과 피뢰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소동이 도를 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을 가산한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피뢰군부는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반대와 거둬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고있다. 이달 18일까지 남조선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발발소동에는 남조선과 해외주둔 미군 1만 8000여명과 수많은 피뢰군부대 그리고 대규모의 최신정예장비들이 투입되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략적능력과 침략무력의 실용능력을 높이는 한편 남조선민간무력까지 동원하여 북침전쟁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집적, 개진》할것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이다.

그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새로운 북침전쟁경본에 따라 진행되는것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무력화》를 노린 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전면전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조선반도 《유사시》 미증후군의 조선전선으로의 신속한 투입과 남조선공과와 합동공격작전절차를 숙달완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의 합동군사연습에는 《작전계획 5027》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며 도발적인 《신원합작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까지 적용되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구실로 새롭게 만들어진 《신원합작계획 5012》에는 우리 공화국의 700여명에 달하는 목표들을 《신제, 정밀타격》하게 되어 있는 《작전계획 5026》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더우기

조선반도 《유사시》는 물론이고 그 누이의 《금번사태》때에도 남조선미국의 합동무력이 《신제군사작전》을 감행한다는 도발적인 《작전계획 5029》를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핵전시지역에서 미친듯이 벌이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철두철미 우리의 전략적중심, 중요거점들을 기습타격하는 방법으로 전면전격을 도발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핵전시공격연습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남연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남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고있는 때에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우기 엄중하다. 최근 북남관계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통족대결소동을 하여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위기국면에 처하였다.

피뢰군부대거리들은 새해벽두부터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구실로 《신제타격》폭언을 광량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전지역에서 흑한기전술훈련, 대규모시상형통동훈련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훈련을 매일 같이 벌여놓으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파당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완전파탄으로 몰아가는 한편 그 무슨 《금번사태》를 떠들며 《비상통제계획》과 《통일대결담연역구》와 같은 불순한 북침모략간담을 들고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남로 무분별하고 있는 남조선전선세력의 대결정조소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남사이의 불화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해소되는 고사하고 더욱 격화되고 전쟁의 위기가 날로 커지고있다. 사실상 오늘 북남관계는 사소한 충돌이나 우발적인 사고도 즉시

전면전격으로 번져질수 있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침략적인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해나선것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그들의 침략적기도가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를 이트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평가가 아무리 소중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이 귀중하다고 해도 상대가 우리를 어찌보고도 돌버드는 조건에서 무자비한 물리적침을 행사하는 길로 나갈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자비하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무분별한 경계당동으로 얻을것이란 쓰디쓴 수지와 파멸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합부로 남침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하지만 피뢰호전광들의 강화하는 한편 광학카메라와 수직식음향탐지장비, 전방위다목적레이더 등을 갖춘 교도의 원거리타격능력을 가진 해상초계기 《P-3CK》를 피뢰해군에 실전배치하고 그 수를 올해중 8대로 늘어났다고 떠들어대고있다.

피뢰들은 우리 공화국의 핵심지휘시설이나 군사기지 등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높이는데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피뢰군부는 3군사령부소속 《대회력전행행부》를 기본으로 육, 해, 공군의 협동작전으로 우리에게 정밀타격을 가할것을 피하면서 그 수단들의 배비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호전광들은 지상정밀타격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K-9》포의 배비와 230mm 다연장로켓포의 개발을 다그치고있으며 해상정밀타격수단으로 함대 지미사일을 장착한 2300t 급호위함 6척을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건조하려 하고있다.

한편 공군대지상미사일 《AGM-84》, 《AGM-142》, 정밀유도폭탄 《JDAM》을 장착한 최신 전투기 《F-15K》와 원거리공격이 가능한 《하늘플록-2》 미사일을 장착한 해상초계기 《P-3CK》를 배비하려고

하고있다.

남조선군부는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비》한다는 명목에 최신무장장비도입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지난 2월 19일 남조선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세대 진공유도무기를 도입하고 증거리유도무기 《M-SAM》의 성능을 개량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5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미국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구매를 앞당기고 《정찰위성》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첨단무기와 장비들을 제한없이 끌어들이기 위해 《방위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러한 광란적인 무력증강책동이 우리에게 대한 《신제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 불분명 명백하다. 최근 피뢰군부대장 김태영이 극히 모험적인 《신제타격》폭언을 늘어놓은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사실들은 의세와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의 핵을 무력으로 해지하기 위한 피뢰군부의 책동이 실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북남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환경에서 피뢰호전세력이 감행하고있는 무력증강소동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그것은 가혹이나 잔정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남조선단체들 성명, 글 발표

◎ 남조선의 《21세기 대 학생연합》이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골자로 한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감행되는 이번 위험천만한 전쟁발발소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음흉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산물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대규모전쟁연습에 매달려 조선반도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현 당국에 과연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의 의심스럽고 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을 강력히 규탄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로즈엔트 파워블러건방지도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항의하여 얼마전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피뢰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들은 미행정부와 현 남조선당국이 절대로는 《평화》에 대하여 떠들어대지만 도발적인 전쟁연습은 은폐된 속살을 다시금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실한 노력을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전선정세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대외 제의하였으나 대화의 방법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고수리행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로총 통일위원장 황수영이 9일 기자회견을 가치고 북남통일행사성사를 위해 적극 투쟁할것을 선언하였다.

그는 남과 북의 로동자들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킬 열의에 넘쳐있다고 발표하였다.

집 《정권》이 반통일정책을 철저히 추구하며 북과의 협력요류를 가라앉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있지만 평화통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은 꺾을수 없

보수당국을 단죄하는 글 발표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 대전선언과 12일 인터넷 트롬세상에 민생포럼을 채택한 보수당국을 단죄하는 글은 게재하였다.

글은 최근 현 《정권》이 《경제위기극복》이니, 《민생안정》이니 뭐라는 나발을 불어대며 지난 2년간의 그 무슨 《치적》 자랑을 늘어놓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서민들의 경제생활현은 날로 어려워져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고 생전권이 침해당하고있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당국이 민생과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반면에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하고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그리고 미군주둔에 막대한 현세를 낭진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반도긴장격화는 남조선에서의 경제발전을 억제하

재일동포들 민족교육말살책동에 항거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로 재인정하는 데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민족교육말살책동에 항하여 재일동포들이 일본각지에서 규판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있다.

얼마전 효고현 민족교육대책위원회와 효고조선학원의 공동주최로 《고등학교지정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것을 반대하는 효고현동포집결회》가 진행되었다.

무분별한 폭압소동을 규탄

해가지고 달아났으며 전 회장의 집에도 신분까지 숙이며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행패를 부렸다. 문평은 단죄하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전교조》, 공무원은 로조, 민주로동당,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이 이어 감행된 이러한 폭압소동을 두고 고배를 마실 정도의 행위라고 밖에 더 할말이 없다고 문평은 지적하였다.

문평은 당국이 《세종시

당국의 범죄적기도를 단죄

남조선의 6.15 공동선언선정 청년학생연대가 11일 문평을 발표하여 강제추행 인민들의 반 《정부》 투쟁을 차단하려는 피뢰당국의 음흉한 기도를 폭로규탄하였다.

문평은 절대다수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고집하며 사회적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당국이 최근 수차례와 관련한 그 무슨 《투표》를 운운하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세종시》문제로 민중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문평은 단죄하였다.

문평은 민중의 정의

관광재개거부를 통해 드러난 반민족적흥계

관광재개거부를 통해 드러난 반민족적흥계

관광재개거부를 통해 드러난 반민족적흥계

관광재개거부를 통해 드러난 반민족적흥계

위험한 사태를 예고하는 무력증강소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적들의 일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경제대세에 들어간다는 지극히 정당하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전쟁반대!》, 《미군 나가라!》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성원들이 12일 경기도 포천시 영평리에 있는 미군훈련장앞에서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미군과 피뢰해병대가 시가전훈련을 벌여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미군훈련장에서는 합동군사연습 때마다 북을 겨냥한 시간전 및 시가전훈련이 실시되어왔고 하면서 그들은 북침을 노린 공격연습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비밀한 《전교조》 말살책동 폭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2일 당국의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전교조) 말살책동을 폭로단죄하는 문평을 발표하였다.

문평은 《법제처》가 교원로조를 공개하는것이 교원들의 사상과 신조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리고 《전교조》 소속 성원들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제처》에 의뢰한데 따른것이라고

